

2024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집을 통해 살펴본 지역방송사의 현실과 활성화 방안 : 9개 지역민방을 중심으로

허찬행
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

목차

- 1 들어가며
- 2 분석 개요
- 3 지역방송사의 최근 5년 재무 상황
- 4 지역방송사의 최근 5년 경영 상황
- 5 맺으며

요약

최근 5년간 9개 지역민방의 재무상황을 살펴보면 자산과 자본은 증가하고 부채비율도 낮아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방송사업 매출은 2022년 이후 감소세가 뚜렷하며, 특히 광고매출의 하락이 두드러진다. 방송 외 수익으로 당기순이익은 유지되고 이익잉여금도 늘고 있지만, 방송사업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다. 프로그램 제작비 비중은 증가했으나 전체 제작비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이고, 인건비 역시 감소해 제작 역량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결국 지역방송은 수익은 쌓이지만 지역성 구현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 투자에는 소극적인 구조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해 제작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방송 정책을 전담할 독립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공적 지원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1. 들어가며

지역방송은 민주적 지방자치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회의 통합과 합의 창출, 지역 문화의 발굴과 전승 등 지역적 가치를 형성하고 매개하여 ‘지역성(localism)’ 구현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이진로, 2004). 하지만 지역성 구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역방송사들의 현실적 어려움은 심각한 수준으로,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주로 서울에 소재한 중앙 국(key station)의 중계기능을 수행하는 주변적인 역할에 머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다(김영수, 2008; 전환성, 2001). 즉, 지역방송사의 시장 구조는 자체 프로그램 제작을 통한 생산자 역할보다는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전국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유통하는 기능을 담당하는데 그치고 있다. 지역 광고 시장의 규모에 따라 상대적인 차이는 있지만, 지역방송사가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만들면 만들수록 경제적으로 손해인 시장 논리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방송사들은 규제 범위 내 최소한의 적정선에 맞춰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제작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제작이 용이한 프로그램 유형을 선호하는 기업적 선택이 이뤄진다(심영섭, 2014). 방송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체제작 프로그램 비율이나 자체편성 비율 준수 의무 범위 내에서 방송프로그램의 자체제작과 편성이 이뤄지고, 보도·교양·오락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에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기보다는 다소 형식적인 지역 생활 정보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제작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 즉, ‘지역성’ 구현이란 방송의 공익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과감한 제작 투자를 통해 다양한 장르의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유통이 필수적이라는 당위성 이면에는 더 많은 자체제작에 투자하면 할수록 손실이 커지는 딜레마 상황이 존재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발간하는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등 방송산업의 여러 지표를 보더라도 지상파 네트워크 방송사조차도 글로벌 OTT 플랫폼 중심의 방송영상 콘텐츠 유통과 이용 환경에서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광고 시장에서의 지위 또한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상파 네트워크의 위상 하락은 중앙에 의존적인 지역방송의 운영 모델에도 타격을 준다.

지역방송 정책에 관한 논의의 흐름을 짚어보면, 1990년대는 지역방송 특히 지역민 방에 대해 ‘지역성’ 구현을 목표로 자체 편성 강화라는 정책적 수단 도입이 주요 골자였다면, 2000년대 초반부터는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의제로 부상했다. 이 같은 지역 방송 발전지원에 대한 논의의 배경에는 규범적 당위 측면에서 지역방송의 지역성 구현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역방송의 자체 제작 및 편성을 늘려 시장 성과를 내기 어렵고, 지역시청자들의 시청 성과 또한 낮기 때문이다(허찬행, 2025).

지역방송이 처한 현실적 상황의 돌파구가 ‘지역성’ 구현을 위해 지역방송사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은 그동안 설득력을 잃고 있다.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지역방송에 대한 정책적 방안이 시도되고 있다. ‘지역방송의 위기’는 20여 년 넘게 문제가 제기되어 왔지만, 지역방송의 과감한 콘텐츠 투자 및 전략이 우선인지,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지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이 글은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이하 “재산상황 공표집”)을 중심으로 지역방송의 현주소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또한 재산상황 공표집의 자료 검토를 토대로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분석 개요

<2024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은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IPTV”)가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23호)에 따라 작성·제출한 재산상황자료에 기초해 2024년 기준 67개 지상파방송사업자, 90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1개 위성방송사업자, 3개 IPTV사업자, 166개 PP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 37개 IPTV 콘텐츠 사업자, 1개 지상파DMB 사업자 등 365개 방송사업자의 2024년 재산상황을 담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2024). 보고서는 2024 회계연도 방송사업자의 재산 상황 요약과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제공사업, PP사업, IPTV 콘텐츠사업, 지상파DMB사업 등 365개 사업자들 각각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방송의 운영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재산상황 공표집에 수록된 9개 지역민방의 재정상황표와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주요 현황들을 분석하였다. KBS 지역총국은 별도의 회계가 없고, 지역MBC는 특별법인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 소유인(주)문화방송이 최대 주주인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상업상 주식회사라도 공적 지배구조를 갖고 있기에 제외하였고, OBS경인TV¹⁾의 경우 누적된 손실로 자본잠식 상태인 점을 감안해 제외하였다.

재산상황 공표집에 수록된 재산상황의 단위는 천 원인데, 분석에서는 반올림하여 백만 원 단위로 환산하였다. 때문에 표기상 원자료와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3. 지역방송의 최근 5년 재무 상황

1) 전체 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무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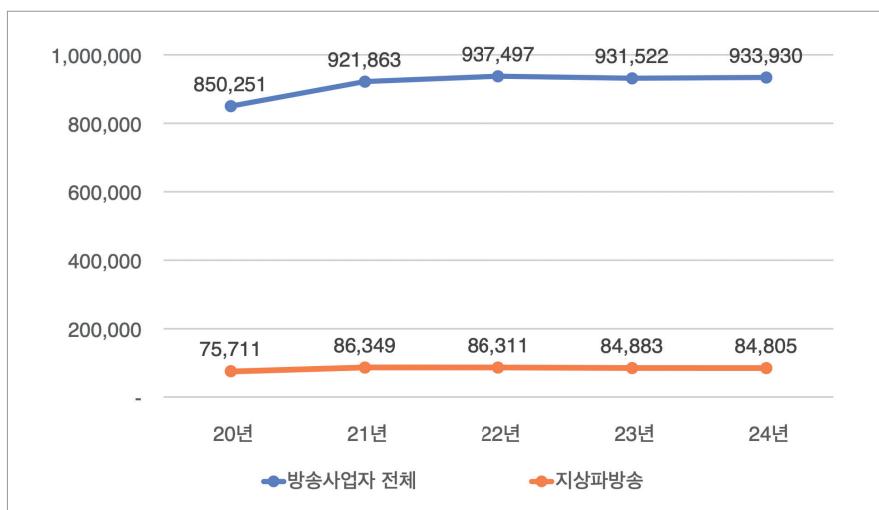
2024년 기준 재산상황 공표대상 365개 방송사업자 전체 자산은 93조 3,930억 원, 부채는 42조 1,689억 원, 자본은 51조 2,242억 원이다. 이 중 지역방송을 포함한 67개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자산은 8조 4,805억 원, 부채는 1조 7,511억 원, 자본은 6조 7,294억 원이다. 2023년 전년 대비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부채는 643억 원 감소했고, 자본은 565억 원 증가했으며, 자산은 78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 2024년 말 기준 OBS경인TV의 재무상황표 상 자산은 359억 8천9백만 원, 부채는 153억 3천8백만 원, 자본은 206억 5천만 원이다. 자본금은 1,551억 5천만 원인데 결손금 1,345억 8천4백만 원으로 자기자본은 206억 5천만 원이 남은 상태고, 부채비율은 74.3%다.

최근 5년간(2020년부터 2024년) 전체방송사업자와 지상파방송사업자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 추이를 살펴본 결과, 방송사업자 전체 자산은 2020년 85조 251억 원에서 2021년 92조 1,863억 원으로 7조 1,612억 원 증가하였고, 2022년 93조 7,4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5,634억 원 증가하였다가 2023년 93조 1,522억 원으로 5,975억 원 감소하였고, 2024년 2,408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지상파방송은 2020년 7조 5,711억 원에서 2021년 8조 6,349억 원으로 1조 638억 원 증가하였다가 2022년 8조 6,311억 원으로 38억 원 감소했으며, 2023년에는 8조 4,883억 원으로 1,428억 원 감소하였고, 2024년에는 8조 4,805억 원으로 78억 원 감소하였다([그림 1] 참조).

[그림 1] 5년간(2020년~2024년) 방송사업자 전체 및 지상파방송 자산 현황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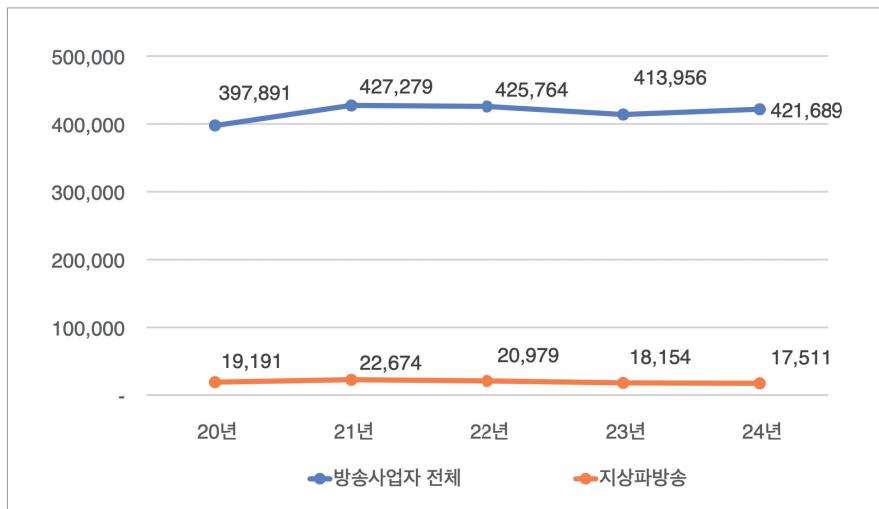
출처 : 2020년 ~ 2024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자료를 토대로 작성

방송사업자 전체 부채는 2020년 39조 7,891억 원에서 2021년 42조 7,279억 원으로 2조 9,388억 원 증가하였다가 2022년 42조 5,764억 원으로 1,515억 원 감소, 2023년에는 41조 3,9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1808억 원 감소, 2024년에는 42조 1,689억 원으로 7,733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67개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자산은 2020년 1조 9,191

억 원에서 2021년 2조 2,674억 원으로 3,483억 원 증가하였다가 2022년에는 2조 979억 원으로 1,695억 원 감소하였고, 2023년에는 1조 8,154억 원으로 2,825억 원 감소했으며, 2024년 1조 7,511억 원으로 643억 원으로 감소하여 2022년 이후 감소 추세다([그림 2] 참조).

[그림 2] 5년간(2020년~2024년) 방송사업자 전체 및 지상파방송 부채 현황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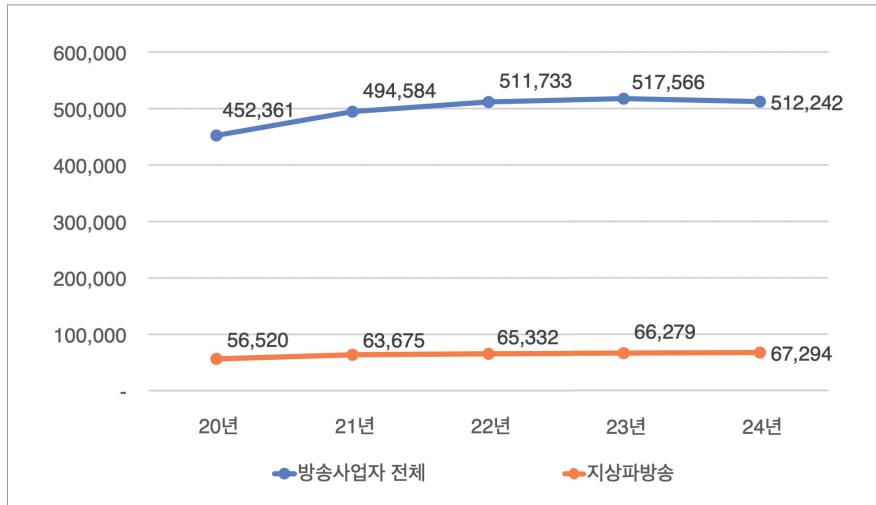


출처 : 2020년 ~ 2024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자료를 토대로 작성

방송사업자 전체 자본은 2020년 45조 2,361억 원에서 2021년 49조 4,584억 원으로 4조 2,223억 원 증가, 2022년 51조 1,7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7,149억 원 증가, 2023년 51조 7,5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33억 원 증가추세를 이어오다가 2024년 51조 2,2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24억 원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지상파방송의 자본은 2020년 5조 6,520억 원에서 2021년 6조 3,675억 원으로 7,155억 원 증가, 2022년 6조 5,3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57억 원 증가, 2023년 6조 6,2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947억 원 증가, 2024년 6조 7,2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15억 원 증가하여 최근 5년간 자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 참조).

[그림 3] 5년간(2020년~2024년) 방송사업자 전체 및 지상파방송 자본 현황

(단위 : 억 원)



출처 : 2020년 ~ 2024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자료를 토대로 작성

2) 9개 지역민방 재무 상황

9개 지역민방의 최근 5년간 재무 상황의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산은 2020년 7,965억 2천3백만 원에서 2021년 8,119억 9천5백만 원으로 154억 7천2백만 원 증가, 2022년 8,213억 1천3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93억 1천8백만 원 증가, 2023년 8,323억 4천2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0억 2천9백만 원 증가, 2024년 8,588억 5천8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5억 1천6백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은 2020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다.

둘째, 부채는 2020년 535억 1천2백만 원에서 2021년 537억 8천2백만 원으로 2억 7천만 원 증가하였으며, 2022년에는 660억 8천5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3억 3백만 원 증가하였다. 2023년에는 551억 4천1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9억 4천4백만 원 감소하였고, 2024년에는 584억 5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6천4백만 원 증가했다.

셋째, 자본은 2020년 7,430억 1천1백만 원에서 2021년 7,582억 1천3백만 원으로 152 억 2백만 원 증가하였고, 2022년에는 7,552억 2천9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8천4백만 원 감소하였다가 2023년 7,772억 1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9억 7천2백만 원 증가하였고, 2024년에는 8,004억 5천5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2억 5천4백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9개 지역민방의 부채비율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2022년 한해 8.8%로 소폭 올랐지만 전반적으로 7%대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자본 대비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7%대로 9개 지역민방 모두 자기자본(자본총계)에서 이익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재정 상태만 놓고 본다면 양호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광주방송(kbc)의 2024년 자본총계는 1,343억 3천2백만 원인데, 이중 자본금이 4백억 원, 자본잉여금 9억 3천만 원, 이익잉여금이 933억 9천9백만 원이다. 9개 지역민방 중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울산방송(ubc)의 2024년 자본총계는 582억 8천2백만 원이며, 이는 자본금 3백억 원과 이익잉여금 282억 8천3백만 원을 합한 금액이다([표 1], [그림 4] 참조).

[표 1] 최근 5년(2020년~2024년) 9개 지역민방 재무상황

(단위 :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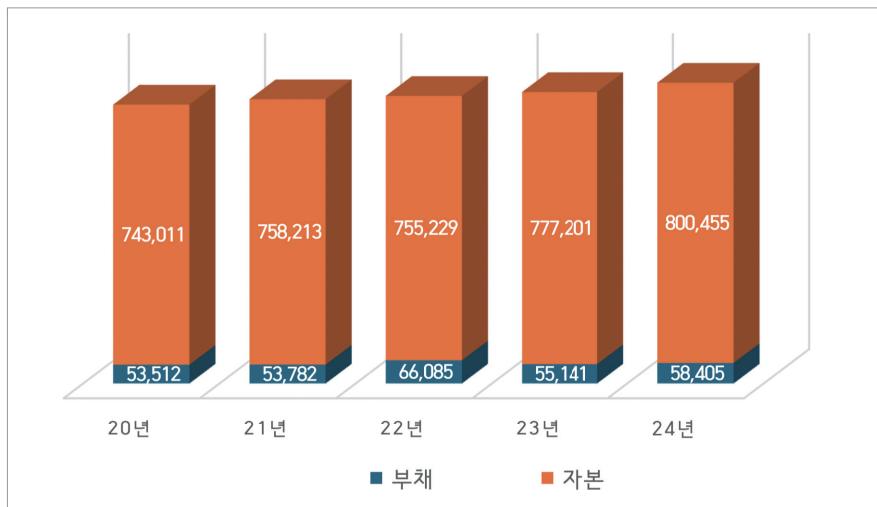
방송사	자산					부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kbc	145,912	142,425	140,588	143,802	141,569	10,512	7,160	7,162	7,633	7,237
TJB	82,550	84,736	90,826	87,298	85,434	5,864	6,267	11,139	5,085	4,180
ubc	51,157	49,431	49,823	48,420	70,808	4,340	3,971	13,446	8,698	12,526
JTV	60,089	62,981	63,061	64,582	65,640	2,602	2,652	2,435	2,639	2,377
JIBS	42,811	42,419	43,764	43,537	44,070	2,929	2,326	4,138	3,737	3,773
G1	42,790	44,525	44,521	44,579	44,240	3,333	3,207	2,463	2,868	2,996
CJB	40,420	39,636	39,797	39,345	39,040	4,608	3,513	3,266	2,930	2,575
KNN	211,243	218,934	220,204	226,592	232,482	13,087	14,978	14,890	13,698	15,097
TBC	119,551	126,908	128,729	134,187	135,575	6,237	9,708	7,146	7,853	7,644
합계	796,523	811,995	821,313	832,342	858,858	53,512	53,782	66,085	55,141	58,405

방송사	자본					부채비율(%)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kbc	135,400	135,265	133,426	136,169	134,332	7.8	5.3	5.4	5.6	5.4
TJB	76,686	78,469	79,687	82,213	81,254	7.6	8.0	14.0	6.2	5.1
ubc	46,817	45,460	36,377	39,723	58,283	9.3	8.7	37.0	21.9	21.5
JTV	57,488	60,329	60,626	61,943	63,263	4.5	4.4	4.0	4.3	3.8
JIBS	39,882	40,093	39,626	39,800	40,298	7.3	5.8	10.4	9.4	9.4
G1	39,456	41,318	42,058	41,711	41,244	8.4	7.8	5.9	6.9	7.3
CJB	35,813	36,123	36,532	36,414	36,466	12.9	9.7	8.9	8.0	7.1
KNN	198,155	203,956	205,313	212,894	217,384	6.6	7.3	7.3	6.4	6.9
TBC	113,314	117,200	121,584	126,334	127,931	5.5	8.3	5.9	6.2	6.0
합계	743,011	758,213	755,229	777,201	800,455	7.2	7.1	8.8	7.1	7.3

출처 : 2020년 ~ 2024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자료를 토대로 작성

[그림 4] 최근 5년(2020년~2024년) 9개 지역민방 재정상황

(단위 : 백만 원)



출처 : 2020년 ~ 2024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자료를 토대로 작성

4. 지역방송의 최근 5년 경영 상황

1) 매출액 현황

9개 지역민방의 전체 매출액은 2020년 2,090억 5천4백만 원, 2021년 2,450억 7천8백만 원, 2022년 2,548억 6천9백만 원, 2023년 2,587억 1천1백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2024년 2,515억 6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71억 5천1백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매출액 중 방송사업 매출액만 놓고 보면 2020년 1,795억 4천1백만 원, 2021년 2,052억 4천4백만 원, 2022년 2,045억 2천5백만 원, 2023년 1,985억 8천7백만 원, 2024년 1,878억 6천7백만 원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9개 지역민방의 방송사업과 기타사업을 합한 매출액은 2023년까지 증가하다가 2024년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방송사업 매출액은 2020년 대비 2021년에만 257억 3백만 원 증가했다가 2022년에는 전년 대비 7억 1천9백만 원 감소, 2023년에는 전년 대비 59억 3천8백만 원 감소, 2024년에는 전년 대비 107억 2천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광고매출이 2020년 790억 9천1백만 원에서 2021년 999억 5천4백만 원으로 2백억 넘게 증가했다가 2022년에는 70억 가량 감소하였고, 2023년에는 전년 대비 220억 가량 감소했으며, 2024년에는 전년 대비 110억 감소하였다. 재송신료 매출과 협찬매출, 프로그램판매 매출은 최근 5년간 소폭의 증가 또는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며, 기타방송 매출과 방송사업 이외의 매출액은 2020년 이후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표 2], [그림 5] 참조).

[표 2] 최근 5년(2020년~2024년) 9개 지역민방 매출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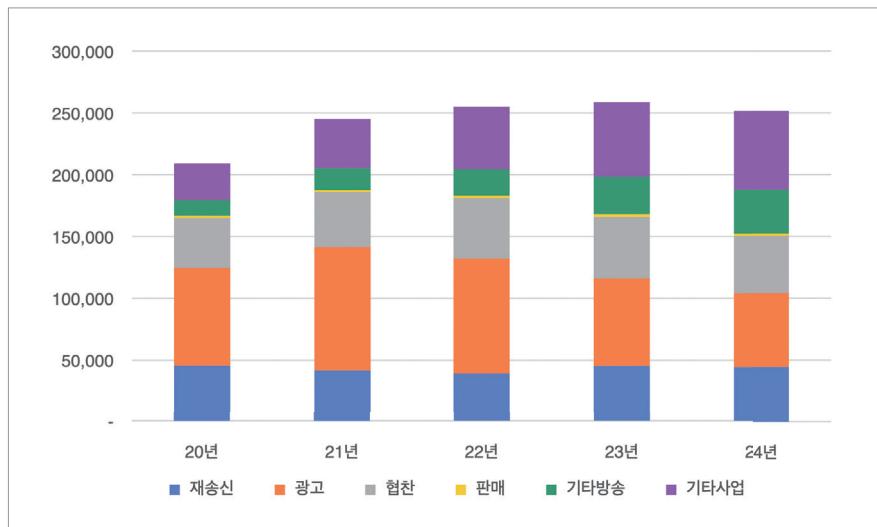
(단위 : 백만 원)

연도	방송사업					기타사업	합계
	재송신	광고	협찬	판매	기타방송		
20년	45,534	79,091	40,351	1,723	12,842	29,513	209,054
21년	41,554	99,954	44,559	1,462	17,715	39,834	245,078
22년	39,486	92,931	48,777	2,028	21,303	50,344	254,869
23년	45,304	70,811	49,763	2,093	30,616	60,124	258,711
24년	44,348	59,744	46,495	1,961	35,319	63,693	251,560

출처 : 2020년 ~ 2024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자료를 토대로 작성

[그림 5] 최근 5년(2020년~2024년) 9개 지역민방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 원)



출처 : 2020년 ~ 2024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자료를 토대로 작성

9개 지역민방의 전체 매출액 중 방송사업 매출과 방송사업 이외 기타사업 매출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방송사업 매출액 비율은 2020년 85.9%, 2021년 83.7%, 2022년 80.2%, 2023년 76.8%, 2024년 74.7%로 연평균 3.3%씩 감소하였다. 반면 방송사업 이외의 기타사업 매출액 비율은 2020년 14.1%에서 2021년 16.3%, 2022년 19.8%, 2023년 23.2%, 2024년 25.3%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9개 지역민방의 매출액에서 방송사업을 통한 매출액은 2022년 이후 감소 추세고,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특히, 방송사업 매출액 구성 항목 중 광고매출액 규모와 비중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표 3] 최근 5년(2020–2024년) 9개 지역민방 매출액 구성 비율

(단위 : 백만 원)

연도	방송사업						기타사업(B) (%)	합계(A+B)
	재승신 (%)	광고 (%)	협찬 (%)	프로그램판매 (%)	기타방송매출 (%)	방송사업 매출(A) (%)		
2020년	45,534 (25.4)	79,091 (44.1)	40,351 (22.5)	1,723 (1.0)	12,842 (7.2)	179,541 (85.9)	29,513 (14.1)	209,054
2021년	41,554 (20.2)	99,954 (48.7)	44,559 (21.7)	1,462 (0.7)	17,715 (8.6)	205,244 (83.7)	39,834 (16.3)	245,078
2022년	39,486 (19.3)	92,931 (45.4)	48,777 (23.8)	2,028 (1.0)	21,303 (10.4)	204,525 (80.2)	50,344 (19.8)	254,869
2023년	45,304 (22.8)	70,811 (35.7)	49,763 (25.1)	2,093 (1.1)	30,616 (15.4)	198,587 (76.8)	60,124 (23.2)	258,711
2024년	44,348 (23.6)	59,744 (31.8)	46,495 (24.7)	1,961 (1.0)	35,319 (18.8)	187,867 (74.7)	63,693 (25.3)	251,560

*재승신, 광고, 협찬, 프로그램판매, 기타방송매출 비율(%)은 방송사업매출(A) 중 비율임
 출처 : 2020년 – 2024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자료를 토대로 작성

2) 방송사업 비용 현황

비용 중 방송프로그램비용으로 9개 지역민방은 2020년 1,293억 2백만 원, 2021년 1,311억 8천만 원, 2022년 1,430억 5천7백만 원, 2023년 1,450억 8천4백만 원, 2024년 1,411억 8천만 원을 지출했다. 2020년 이후 2023년까지 방송프로그램비용 지출이 늘었지만, 2024년에는 전년 대비 40억 9천4백만 원이 줄었다.

방송프로그램비용은 방송사업매출의 원가로서 방송제작비와 방송프로그램구입비로 구성된다. 9개 지역민방의 제작비와 프로그램구입비 간 비율은 2020년 각각 99.6%와 0.4%, 2021년 99.5%와 0.5%, 2022년 99.6%와 0.4%, 2023년 99.7%와 0.3%, 2024년 99.8%와 0.2%로 프로그램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평균 0.3%에 그치고 있다. 즉, 9개 지역민방의 방송프로그램 비용에서 프로그램 구입 비용은 극히 낮은 수준이며, 전적으로 프로그램 제작에 투입되고 있다.

방송사업매출 대비 방송프로그램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4년 기준으로 2020년 규모보다 낮아졌다. 방송사업 매출액 또한 2020년 대비 2021년 257억 원 증가했다가 2022년 전년 대비 7억 원 감소, 2023년 전년 대비 60억 원 감소, 2024년 현재 전년 대비 107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업매출액이 2021년 이후 감소추세며, 비용 또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매출액 중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63.9%로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오르는 추세다. 즉, 방송사업매출액이 줄고 비용 또한 감소 추세인 가운데,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비용 부담이 커지고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 최근 5년(2020~2024년) 9개 지역민방 방송사업매출과 비용 현황

(단위 : 백만 원)

방송사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매출*	비용** (%)	매출	비용 (%)	매출	비용 (%)	매출	비용 (%)	매출	비용 (%)
광주방송 (kbc)	24,193	20,081 (83.0)	26,813	17,871 (66.7)	26,849	19,372 (72.2)	27,331	21,144 (77.4)	23,649	19,547 (82.7)
대전방송 (TJB)	21,997	15,889 (72.2)	23,761	16,455 (69.3)	22,631	16,131 (71.3)	21,055	17,261 (82.0)	18,700	15,753 (84.2)
울산방송 (ubc)	13,442	9,991 (74.3)	16,932	10,541 (62.3)	14,635	11,172 (76.3)	15,434	11,535 (74.7)	16,792	9,778 (58.2)
전주방송 (JTV)	14,894	9,321 (62.6)	19,209	10,061 (52.4)	20,678	11,926 (57.7)	23,082	12,035 (52.1)	25,626	12,063 (47.1)
제주방송 (JBS)	11,102	8,018 (72.2)	11,437	7,421 (64.9)	13,406	11,926 (57.7)	12,474	8,320 (66.7)	10,493	8,257 (78.7)
G1	17,278	10,255 (59.4)	20,044	11,087 (55.3)	21,832	12,975 (59.4)	20,100	12,628 (62.8)	16,622	11,530 (69.4)
청주방송 (CJB)	11,689	9,299 (79.6)	13,082	8,810 (67.3)	13,734	9,832 (71.6)	12,917	10,300 (79.7)	13,555	11,250 (83.0)
케이엔엔 (KNN)	39,441	26,772 (67.9)	43,422	28,241 (65.0)	40,396	30,762 (76.2)	37,646	29,072 (77.2)	36,159	31,325 (86.6)
티비씨(TBC)	25,505	19,676 (77.1)	30,544	20,693 (67.7)	30,364	22,020 (72.5)	28,548	22,789 (79.8)	26,271	21,677 (82.5)
합계	179,541	129,302 (72.0)	205,244	131,180 (63.9)	204,525	143,057 (69.9)	198,587	145,084 (73.1)	187,867	141,180 (7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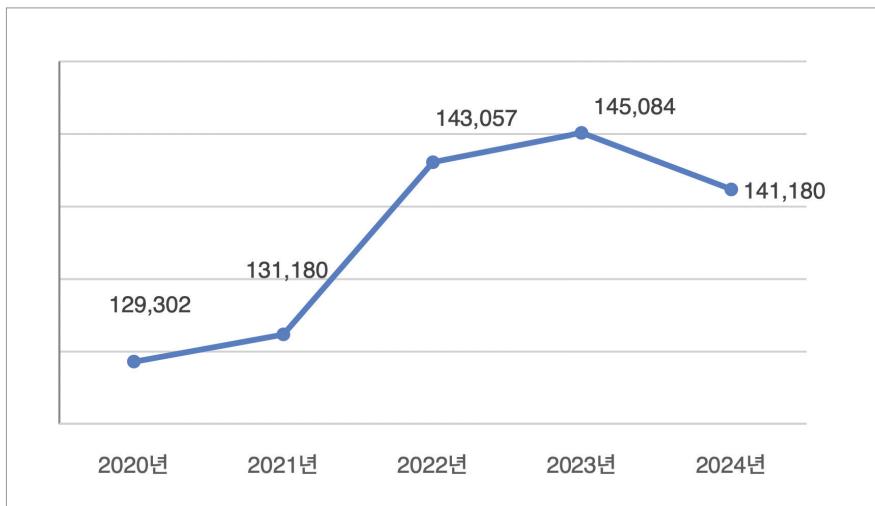
*매출은 방송사업매출액

**방송사업매출액 중 방송프로그램 비용(방송프로그램 제작비 + 방송프로그램 구입비)

출처 : 2020년 ~ 2024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자료를 토대로 작성

[그림 6] 최근 5년(2020년~2024년) 9개 지역민방 방송프로그램 비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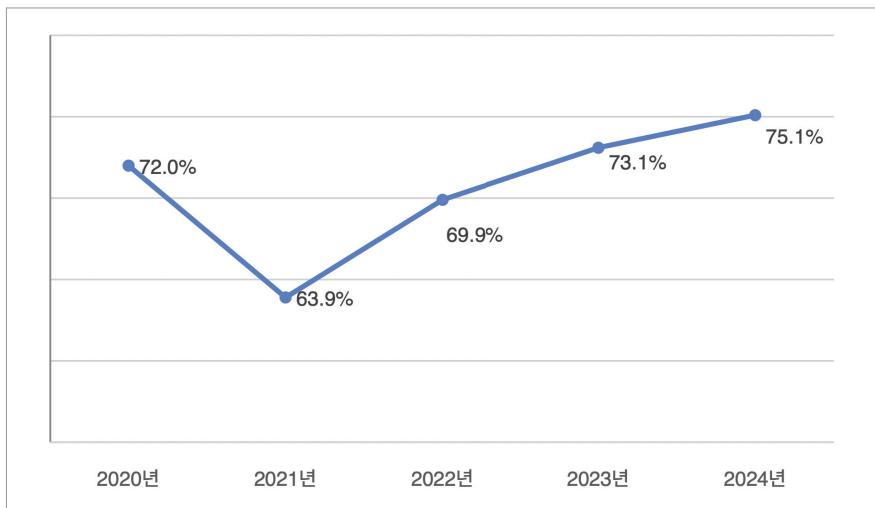
(단위 : 백만 원)



출처 : 2020년 ~ 2024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자료를 토대로 작성

[그림 7] 최근 5년(2020년~2024년) 9개 지역민방 방송매출액 중 비용 비중 현황

(단위 : 백만 원)



출처 : 2020년 ~ 2024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자료를 토대로 작성

3) 방송사업 손익 현황

2020년부터 2024년까지 9개 지역민방의 당기순손익은 20년 104억 5천9백만 원에서 2021년 195억 1천4백만 원으로 증가했다가, 22년 63억 8천2백만 원으로 약 130억 원 감소했다. 2023년 257억 5천2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0억 원가량 증가했고, 2024년에는 308억 7천4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억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울산방송(ubc)의 경우 2020년 19억 6천2백만 원, 21년 13억 5천7백만 원, 22년 90억 8천3백만 원의 적자를 이어오다가 23년 33억 4천6백만 원, 24년 185억 6천만 원의 흑자를 내면서 9개 지역민방송 합산 당기순익이 증가한 것에 영향을 미쳤다. 순손실을 이어오던 ubc의 경우 23년 흑자전환, 24년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한 것은 방송사업이나 기타사업의 매출 증대가 아닌 지분법이익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² 따라서 ubc를 제외한 8개 지역민방의 2023년 당기 순손익은 224억 6백만 원에서 2024년 123억 1천4백만 원으로 약 100억 원 감소하였다.

광주방송(kbc)은 2020년, 2021년 2023년은 당기순익을 2022년과 2024년에는 손실을 기록했다. 최근 5년 동안 제주방송(JIBS)과 청주방송(CJB)은 누적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표 5] 최근 5년(2020–2024) 9개 지역민방 당기순손익 현황

(단위 : 백만 원)

방송사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합계
광주방송(kbc)	6,229	665	-1,839	2,743	-1,437	6,361
대전방송(TJB)	735	2,082	1,818	3,216	-357	7,494
울산방송(ubc)	-1,962	-1,357	-9,083	3,346	18,560	9,504
전주방송(JTV)	816	2,200	1,693	2,251	2,567	9,527
제주방송(JIBS)	-4,084	210	-257	175	497	-3,459
G1	783	2,168	1,322	-79	-468	3,726
청주방송(CJB)	-1,493	310	409	-117	51	-840
케이엔엔(KNN)	5,947	8,738	7,399	8,044	7,675	37,803
티비씨(TBC)	3,488	4,498	4,920	6,173	3,786	22,865
합계	10,459	19,514	6,382	25,752	30,874	92,981

출처 : 2020년 – 2024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자료를 토대로 작성

2) 2022년까지 ubc는 적자를 이어오다 2023년과 2024년 영업외 수익으로 지분법이익이 각각 68억 3백만 원, 201억 1천만 원 발생했다. 영업이익은 2023년과 2024년 각각 45억 원, 20억 원 손실을 기록했다.

9개 지역민방의 최근 5년간 인건비 지출 규모는 2020년 160억 2천5백만 원, 2021년 169억 5천1백만 원, 2022년 169억 6천3백만 원, 2023년 167억 7천5백만 원, 2024년 167억 4백만 원이다. 각 방송사별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양상이지만 2020년과 2024년을 비교하면 kbc는 4억 2천8백만 원 감소, TJB는 7억 7천5백만 원 증가, ubc는 2억 2천만 원 감소, JTV는 1억 4천7백만 원 감소, JIBS 3억 8천4백만 원 증가, G1 2억 6천9백만 원 감소, CJB 2억 4백만 원 증가, KNN 5억9천만 원 증가, TBC 3억 3천만 원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증감만으로 방송 인력의 증감을 판단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동일한 인력이 유지되더라도 자연적으로 연차가 오르면서 인건비가 증가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인력이 퇴직하고 신규 충원이 이뤄진 경우에도 인력 규모는 동일해도 인건비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개 지역민방 전체적으로는 2022년까지 인건비 지출 비용이 증가하다가 2023년부터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5. 맷음말

‘지역방송의 위기’는 지난 20년 넘게 지역방송을 수식하는 표현이 되어 왔다. 한편에서는 지역방송이 유보금을 쌓아두면서도 지역성 구현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에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방송의 공익적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상업방송이면서도 공익적 역할 수행을 위한 지역방송의 적극적인 투자에 대한 주문이 당위적으로는 옳더라도, 현실은 방송사업에 대해 투자를 하면 할수록 손실이 발생하는 딜레마 상황이 지속되면서 공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이 글은 방송사업자 재산공표집을 토대로 지역방송이 처한 현주소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9개 지역민방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재무상황과 경영상황들에 대한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9개 지역민방의 최근 5년간의 재무상황은 양호한 편이다. 부채비율은 7%대이고, 2020년 이후 자산은 증가추세이며, 부채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지만, 자본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을 크게 웃돌면서 자본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9개 지역민방의 방송사업매출액은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방송사업과 방송 이외 기타사업매출액을 합한 전체 매출액은 2023년까지 증가하다가 2024년 감소세를 보였다. 매출액 중 방송사업매출액 비중은 2020년 85.9%에서 연평균 3.3%씩 감소해 2024년 기준 74.7%로 나타났다. 방송사업 매출액 감소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항목은 광고매출이며, 기타방송사업 매출은 늘고 있는 추세다.

셋째, 비용 측면에서 방송사업 매출액 중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방송사업 매출이 줄고, 프로그램제작 비용도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사업 매출 중 프로그램 제작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5년간 2021년 63.9%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해마다 늘어 2024년 기준 75.1%로 나타났다.

넷째, 인건비는 2023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인건비 감소가 단순히 인력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방송 사업 매출액의 감소와 비용 상승과 연계해 본다면 방송프로그램 제작이 약화 될 수 있다.

재정상황과 경영상황을 종합해보면, 9개 지역민방의 경우 방송사업은 매출액 감소,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방송 이외 사업이나 지분법수익과 같은 영업의 수익을 통해 대체로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다. 일부 방송사는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대체적인 당기순이익을 통해 이익잉여금이 늘어나 자본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방송사업은 악화되고 있는데 수익을 비롯한 자본은 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방송 제작에 투자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역방송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성 구현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에 투자하는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적 지원을 비롯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지역방송사가 프로그램 제작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해 지원할 필요

가 있다. 광고 매출이 큰 폭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프로그램 제작에 투자한다고 해서 매출 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 설치와 운용을 통해 지역방송사가 손실의 위협에도 프로그램 제작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유인(incentive)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지역방송 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결정과 집행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어 지원에 대한 심사 기능에 한정되어 있다. 법제도적 정비를 통해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독자적인 정책기관으로 지역방송 정책을 관할하는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방송통신 발전기금이 아닌 독자적인 기금 운용을 비롯한 공적 지원 확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영수·최진호(2015).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대한 지역방송 종사자의 우선순위 인식 연구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의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중요도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9(6), 446~474.
- 김재영·한상현(2015).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향한 기대와 현실 :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5권 3호, 67~96.
- 방송통신위원회(2021). 〈2020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 방송통신위원회(2022). 〈2021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 방송통신위원회(2023). 〈2022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 방송통신위원회(2024). 〈2023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 방송통신위원회(2025). 〈2024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 심영섭(2014). 지역 지상파 방송의 현황과 전망. 〈충청언론학회 2014학년기 학술세미나 자료집〉, 3~31.
- 유승관(2017).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제도에 대한 분석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16권 3호, 71~99.
- 윤영태(2014). 지역방송의 지역성 구현에 관한 사례 연구 : 지역정보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언론학연구〉, 18권 4호, 163~189.
- 이진로(2004). 지역방송의 지역성 구현과 방송법의 규제방안. 〈한국방송학보〉, 18권 3호, 643~678.
- 이진로(2008). 지역방송 정책의 평가와 과제 : 방송위원회 보고서(1994년과 2003년)의 제안 내용 분석과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 제언. 〈언론과학연구〉, 8권 3호, 68~113.
- 전환성(2001).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방송의 대응전략 및 정책방향. 〈방송통신 연구〉, 52권, 95~127.
- 정상윤(2009). 지역방송정책 평가연구 : 2000년 이후의 로컬리즘정책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9권 2호, 498~530.
- 최현주(2023). 지역민영방송자체편성 의무비율 개정 고시의 한계점 및 개선방안. 〈한국사회과학연구〉, 42권 1호, 181~209.
- 허찬행(2025). 지역방송의 재난방송에 대한 실질적 정책적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25 봄철 정기학술대회 자료집〉.